

□ 南北頂上會談과 韓美日 共助¹⁾

- 회담 성사는 남북한의 의도가 서로 맞아 떨어진 결과이며, 韓美日 3국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온 점도 일정 역할을 수행하였음
- 현재 관심은 한국이 북한에게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, 남한의 정상 회담에 대한 적극성으로 인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클 것으로 기대됨
- 향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주변 4강(미·일·중·러)과 한국 정부의 긴밀한 공조가 더욱 중요해질 것임

○ 南北頂上會談 合意의 意義와 背景

- (의의)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남북간에 있어서 역사적 사건이며, 특히 김정일이 타국 頂上과는 첫 번째 실무적 회담을 하게 되는 것임
 - 이 때 김정일의 발언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음
- (북한의 정상회담 합의 배경)
 - ① 전방위 외교의 일환
 - 북한으로서는 北美 관계가 변함없이 가장 중요하지만, 최근 北美 관계가 고착상태에 빠져 외교면에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도 전방위 외교를 추진할 필요성을 인식
 - 중국, 러시아, 이탈리아, 필리핀 등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여 그 성과에 자신감을 얻고 있으며, 이번 합의도 이러한 흐름의 하나라고 생각됨
 - ② 북한 경제의 악화
 - 북한 경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, 독자적으로 식량·에너지 부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음
 - 김정일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이러한 현상을 타개해야 하지만, 미국·일본은 기대 이상의 물자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
 - 지난 3월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에서 제안한 농업, 도로, 에너지 등 사회 인프라 지원은 북한으로서는 큰 매력이었을 것임

1) 이 글은 森本敏의 “南北首腦會談合意-日美韓, 結束さらに強めよ”(日本經濟新聞, 2000년 4월 17일자)를 정리 및 추가한 것임

③ 한국의 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성

- 한국으로서는 총선을 의식할 수 밖에 없었고, 北美·北日 관계가 진전되면 남북 관계만 지체된 감을 받게 되어, 정상회담에 적극적이었음

- (국제적 의미)

- 이번 회담은 韓美日 3국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온 성과라고 할 수 있음
- 韓美日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각각 북한과 교섭을 하고 있지만, 남북 관계가 우선 진전되어야만 北美·北日 관계도 진전될 수 있음

○ 북한과 주변국 관계

- 당면 관심은 한국이 북한에게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임

- 그 이유는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측이 사전에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임
- 특히 한국이 남북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정상회담 결렬시 그 타격은 한국이 훨씬 크다는 점도 지원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임
- 북한의 최대 목적은 체제 수호이기 때문에, 이번 정상회담 수용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음

- (북한의 전술과 주변국)

- (북한의 전술) 韓美日의 3국과 개별 교섭하면서 개별 국가로부터 최대한 이익을 얻어 낸다는 전술을 구사
- 남북 관계의 진전이 北美·北日 관계의 진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, 향후 지나친 낙관은 금물임
- ① (한국) 이번 합의가 실현되어도 그것은 장기에 걸친 새로운 남북 관계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
- ② (미국) 대통령 선거까지 북한과 미국은 외교면에서 공백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됨
- ③ (일본) 최근 北日 수교 교섭이 7년만에 재개됨
 - 지난번과의 차이점은 ▲ 북한측의 지도자가 바뀌었다는 점 ▲ 남한 정부가 北日 교섭 진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 ▲ 韓美日의 공조가 긴밀해졌다는 점 등임

- (향후 일본의 대응 전략) 대국적 자세의 견지 및 韓美日 공조의 공고화

- ① 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엄격해진 일본의 대응과 美日 동맹 관계의 강화로부터 일본이 북한에게 대국적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, 이는 바람직함
 - 일본은 北日 협상에서 안이하게 타협해서는 안되며, 보상·일본내 재산 청구권 문제 뿐만 아니라, 일본인 납치 문제, 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피해서는 안됨
 - (일본인 납치) 남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중요시하듯이, 일본인 납치 문제도 중요함
 - (군사적 위협) 북한이 110만 명에 달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, 일본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노동 미사일을 100基 가까이 배치하고 대포동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인공 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음. 이와 동시에 핵개발 의혹도 심각함
- ② 韓美日 공조 체제의 공고화
 - 韓美日은 북한과 인내심 있게 공동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음
 - 일본은 지속적으로 한국·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美日 안보 체제를 공고히 하여 국내 체제를 정비하면서 국익을 추구해가야 함

○ 示唆點: 南北頂上會談과 國際 關係

-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北美·北日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

- (미국) 페리보고서에서 대북 관계 개선의 주요 조건으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시했는데, 정상회담 개최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 고위급 회담의 개최 등도 예상됨
- (일본) 北日 수교 협상도 가속도가 붙어 5월말의 제10차 국교정상화 본회담에서 예상 외의 진전도 생각할 수 있음

- 정상회담은 중국,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임

- 이번 정상회담 합의에 중국도 상당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경제 재건을 서두르는 러시아로서도 남북 관계 개선은 자국 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임

- 주변국(미·일·중·러)과 한국 정부와의 공조는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 조건임

- 韓美日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화하는 한편,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도 더욱 요구됨

(황동언)